

스물여섯명 엄마의 애틋한 아기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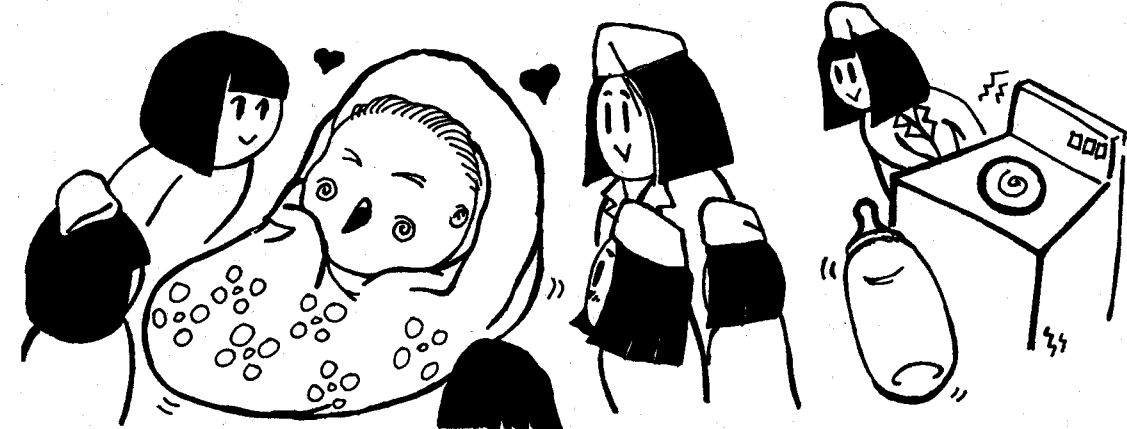
선천성 뇌수두증의 10개월된 고아에게 간호사들 사랑모아

경희의료원 7층 신경외과 중환자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중환자실의 중압한 분위기를 깨는 듯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바로 생후 10개월된 신민지양의 울음소리이다.

민지양은 지난 10월 6일 경희의료원에 입원했다. 부모가 없어 입양기관에 맡겨졌던 민지양이 고열 및 간질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 경희의료원에 보내져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병명은 선천성 폐쇄성 뇌수두증. 뇌에 물이 고이는 병으로 골격이 형성되지 않은 채 물이 머리에 고여 머리가 커지는 병이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머리둘레가 55cm(정상인의 머리 둘레는 53cm)였다고 한다. 머릿속에 주사바늘을 주입해 물을 빼내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결과는 겨우 3cm가 줄어드는 것뿐이었다.

수술후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민지양은 머리속의 염증으로 계속되는 고열에 시달렸다. 처음에 민지양이 중환자실에 왔



을 때 간호사들은 의아해 하긴 했다. 부모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지양의 딱한 사정을 알게된 26명의 간호사들은 민지에게 시선을 모으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자연스럽게 민지의 옷도 빨아주고 분유도 먹이기 시작했다. 3교대를 해가며 민지에게 관

심과 사랑을 보내는 간호사. 민지양에게는 26명의 엄마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병원 내에 전해지면서 약간의 금일봉과 모금액이 들어왔다.

"저의 집에 데려가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장벽이 너무 높네요"라는 김남

희 간호사는 "민지가 커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 이 세상에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사랑이 민지양의 병을 낫게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26명의 간호사 엄마들은 민지양을 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현일 기자>

수미회전

수원지역 원로작가들의 모임인 수미회는 21일까지 뉴코아동수원백화점 9층에서 전시회를 할 예정이다.

수미회는 원로작가들을 중심으로 수원지역의 미술발전을 위해 모인 단체로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수미회 미술의 단면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몽골복지부장관 일행 내원

조리고 몽골 복지부장관 일행 5명이 경희의료원을 방문했다.

지난 11월5일 복지부 관계자와 함께 내원한 몽골 복지부장관 일행은 동서의학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동대문구 가로판매점 단장

동대문구에서는 지난 4일부터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53개소 전가로판매점 외벽에 대한 일제도색을 실시하고 있다.

가로판매점 단장은 산뜻한 이미지를 위해 밝은 색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상징물(백로)과 휘장(구마크)을 채색하였다.

정보화도서관 건립 계획

동대문구청에서는 지난 10월30일 '기자설명회'에서 청량리동에 정보화도서관 건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월 백지확보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2천년 12월경이 되면 완공될 이 도서관건립엔 총 64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1천6백60㎡의 대지,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에는 어린이열람실, 역사자료실, 문화강의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동대문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유용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도서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밝혔다.



피가 모자라

피가 말랐던 수혈

지금부터 약 8년전 일이다. 20대의 젊은 청년이 수원 근교에서 교통사고로 동수원 병원에 실려갔고 복부에 입은 손상에 대해 그곳 응급실에서 응급 처치를 하게 되었다. 많은 수액 체재를 투여하여 활력징후를 안정화하려 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출혈이 지속되어 수혈은 물론이거니와 응급 개복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한 상태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환자는 Rh-, O형이었다. 그 곳 병원은 물론 수원에 그러한 혈액이 없었다. 그래서 환자를 서울로 보내야겠다는 급한 전갈을 받았다. 동수원 병원은 우리와 자매 병원으로서 전공의를 함께 선발하는 곳으로 서로간에 어려운 것은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터라 거절할 수도 없거니와 의사로서도 진료 거부하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환자는 엠브린스로 거의 날아 오다시피 하여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환자는 실혈로 인하여 무척 창백하였고 저혈압을 보였고 불안과 쇼크로 인해 안절부절이었다. 그래서 수술 준비를 하고 피를 알아 봤으나 우리 병원은 물론 혈액원에 한병도 없었다. 피를 구하려는 방법을 생각 중에 미군병원과 TV 매체를 생각하였고, KBS에 도움을 요청하여 방송을 부탁하고 난후 미군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때는 이미 밤이어서 정상 근무자는 모두 퇴근하고 있던 터라 여러 경로를 거쳐 간신히 혈액 담당원과 연결이 되었다. 그때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Rh-, O형 혈액을 원한다고 하였더니 자기가 혈액 상황을 알아보고 전화를 해준다고 하였다. 또한 KBS TV에서 방송이 자막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 준비를 진행시킨 후 방에서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 군데서 전화는 왔으나 90%이상이 장난 전화이었다.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판국인데 이렇게 장난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오래지 않아 미군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4병인데 다 줄 수는 없고 두병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하여 급히 사람을 보냈다. 또한 두명이 택시를 타고 갈 테니 기다려달라는 고마운 사람도 있었다.

개복 수술은 별탈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고 미군과 다른 두사람의 도움으로 수혈을 하였다. 환자는 아무런 합병증없이 빠른 회복을 보였고 입원 8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퇴원시 환자는 무척이나 고마워하였고 제2의 탄생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노라는 말을 덧붙였다.

환자는 며칠 후에 외래에 와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하고 오렌지 주스를 놓고 갔다. 돈을 받은 것보다도 마음은 한결 가볍고 뿌듯한 만족감을 느꼈으며, 또한 옛적 미국에 유학시 교생은 많이 하였으나 그때에 익혔던 영어 덕에 한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어디인지는 모르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리라 확신한다.

고영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의료원, 관악구 주민 무료진료

경희의료원은 관악구주민을 위한 무료진료(담당 유명철교수)가 지난 10월 19일 봉천동 원당초등학교에서 실시하여 5백73명의 주민에게 인술을 베풀었다. 남산로타리클럽과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무료진료

에는 내과, 정형외과, 치과, 한방 등 8개과 56명이 참가했다. 무료진료팀은 자궁암검사와 관절염 혈액검사를 내원객 개인에게 통보했으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관악구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마음 봉사단 '사랑의 헌혈' 운동

한마음 봉사단은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헌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헌혈운동의 행사는 50세 미만인 신체 건강한 남녀로 사회사업실과 신관 현관에서

신청서를 배부하고 있다. 헌혈장소는 임상병리과이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채혈하고 있다.

수원 경희25시 편의점 황대원(35)씨

우리마을 지킴이 항상 웃는 '마담아저씨'



라면 하나를 사러 오거나 종이컵 몇개만을 사더라도 언제나 상냥한 말씨와 부드러운 미소로 우리들을 친절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 바로 수원캠퍼스 경희25시 편의점 마담아저씨이다.

올해로 우리와 함께 있는지 4년이 된 그는 누가 보아도 여성스럽다는 생각을 할 정도이다. 그러나 그런 마담아저씨가 전방 28사단 태풍부대 보병출신이란 것을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 "대인 관계에서 미움을 받거나 주기가 싫다. 그런 것들을 피하다 보니 아마 지금의 성격이 된 것 같다."며 자신의 성격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아무리 마음이 좋고 느긋한 사

람이더라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 법이다. 편의점 마담아저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천주교를 믿고 있어 그럴 때 가끔 가보기도 하고 놀러다니며 친구들을 만났으로써 기분을 푼다. 대부분의 어려운 점은 편의점을 하며 생기는 육체적 피로이다. 그러나 학생들과의 만남이 즐겁기 때문에 생활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 언제나 웃으며 즐겁게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나이가 35세란 것이 믿어만 느껴질 따름이다. 알고 지내는 학생의 수가 약 1천여명에 달하는 그는 이곳을 아주 좋아한다.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이곳만의 문화, 학생들과의 친근감 때문에 그는 이곳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학생들로 인하여 속상할 때가 있다. 바로 학생들끼리 싸울 때라고 한다.

"언제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상냥하게 웃는 그의 밝은 표정엔 항상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친근함이 담겨있다. 경희 25시에 가면 누구나 "○○주세요!"라는 말보다 인사부터한다. 서로 웃으며... <김윤택 기자>

장제비 지급신청 안내

사망일로 부터 2년 이내 지급해야

의료보험관리공단 서울북부지부에선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를 지급한다.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만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피보험자의 경우 30만원, 피부양자는 20만원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신생아 제외)', '사산한 경우',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가해자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하여 손해배상

수원종합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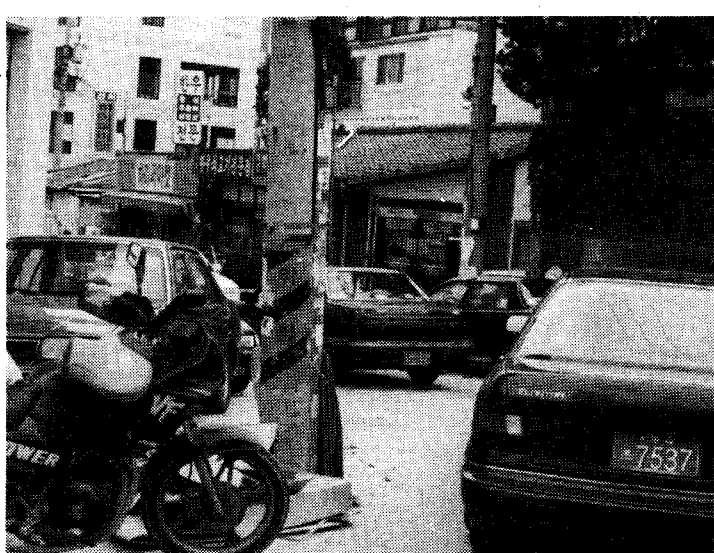
수원시는 장안구 송죽동에 위치한 만석공원에 종합문화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연면적 2천 5백평이다. 공연장, 향토자료실, 자료실, 문화의 집,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98년 2월 1일까지 건축설계를 공모한 뒤 기본, 실시 설계의 과정을 거쳐 건축에 들어갈 것이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와 다양한 문화의 접촉을 위한 이번 수원시의 계획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을 받은 경우', '손해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금(종합·책임보험금포함)을 수령한 경우'는 장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내 집 앞은 안돼!

의료원 타워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한가운데에 전신주가 서있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주민들은 좌측의 집으로 전신주를 옮기자는 여론을 표했으나 집주인은 "내 집앞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HYUNDAI OIL REFINERY CO., LTD.



OILBANK

"In The Near Future"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